

~제 5 회 한일역사공동연구회 보고~

복음에 의한 화해위원회 미야자키 호마레



복음에 의한 화해위원회와 역사편찬위원회는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제 5 회 한일역사공동연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교토의 관서쵸미너하우스에서 개최하였으며 한국측 18명 일본측 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형제단의 세토 이사쿠 목사(아마자키교회)의 참가와 정성범목사(히가시하나조노교회)의 발제가 있어기에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번의 주제는 「1945년(광복절과 일본패전) 이후의 한일성결교회」로 한국과 일본이 세 명씩 발제하였습니다.

박찬희교수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의 한국성결교회의 사회의식에 대해서 발제하였습니다. 당시 경성신학교 교수인 박현명교수는 한국의 헌법 11조가 명시하고 있는 정교분리에 대해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정치와 종교가 각각의 사명을 다함으로 국가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1946년에 이승만씨가 「성결교회 성도여 사회의 선구가 되시오」라고 외치며 사회건설의 사명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도덕성과 사상의 면에서 교회의 사회적역할을 인식하였습니다.



하도균 교수는 「해방이후 한국성결교회의 전도운동에 관한 연구」(1945~1961년)에 관해서 발제하고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를 전도학의 시점에서 집중하였습니다. 한국성결교회는 직접전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성봉목사가 지휘한 임마누엘특공대나 희년복음전도대는 직접전도의 상징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레티·카우만이십자군전도대를 조직하고 OMS에 의한 직접전도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간접전도에도 힘을 쏟기 시작했는데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고자 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OMS의 지원에 의한 구호자금과 물자를 이용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나 이념이 미숙했던 관계로 세속화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교수님은 직접전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간접전도 방식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황덕형 교수는 「과거청산의 기회와 그 신학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습니다. 일본이 강요한 신사참배에 대한 세 개의 모습을 지적하였습니다. 첫번째 모습은 대결자세로 박해나 순교라고 하는 험한 길을 각오한 저항운동입니다. 두번째 모습은 신사참배에 협력하고 국민들에게 권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번째의 모습은 묵인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묵인한 사람들에게도 전쟁책임을 묻는 엄격함이 있으며 그 예리함에 놀랐습니다.

일본측은 사토 노부토 목사가 「재림에 관한 나카다쥬지의 논설」이라는 제목으로 나카다목사의 해석의 문제점을 치밀한 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히라노 신지 목사는 「일본내 홀리네스계통교회의 교과 계보」에 관하여 발표하고 일본에 있어서의 홀리네스계 제교과와 그 중심인물을 소개하였습니다.



기독교형제단의 정성범목사의 발제는 「재일교포 2세로서의 자기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락 차별의 실태와 재일교포 2세로서의 정체성 위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발제자가 일때문에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세토 이사쿠 목사가 대독하였습니다.

교토에서의 개최이었으므로 와다 츄우조 목사와 니시하라 노부오 형제 미야우지 츠토무 목사등 긴키교구의 많은 신세를 지었습니다. 교구활동이 겹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로 협력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한국 여러분들과 토요나카이즈미교회에서 수요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 함께 부흥과 평화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교토관광에서는 신가이 마사아키 목사가 안내해 주셔서 세계유산과 니이지마 기념관을 견학하였습니다.

라쿠세이침례교회의 스기노 사카에 목사로부터 기리시탄 시대의 물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빛을 비추면 십자가가 떠오르는 기리시탄 마법의 거울에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공동연구에서는 한일의 박해를 배우는 것이 많은 관계로 기리시탄 탄압의 역사는 모두에게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初めてこの研究会に出席して～

역사편찬위원회 사토 노부토

이 번에 5 회째가 되는 연구회는 처음에는 화해위원회의 주최로 시작되었지만 얼마 안있어 역사편찬위원회도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위가 있어서 제가 이 번 연구회에 처음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연구회



와 계속된 교토관광을 합한 4일간은 저에게 있어서 「즐거웠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전차 안에서 「이 편안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보통 친하게 접할 기회가 없는 한국분들과 4일간을 함께 지낸다고 하는 이문화 교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제각기 외국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것이 편견이나 차별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한국인」하면 TV 등에서 가끔 방송되는 것처럼 반일감정을 앞세워서 항의 행동을 하는 그런 이미지 만이 앞서곤 했었습니다. 그러한 국민성의 차이를 내 안에서는 이미 정해져 버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번의 4일간은 그러한 한국분들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수정되어 가는 실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반의 연구회에서는 각자의 역사를 서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상대 나라와는 다른 독자적인 역사가 있는 한편 서로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때 내가 특히 감명을 받은 것은 그러한 상호의 역사를 서로 배울 때에 자기들의 가치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면서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그러한 성숙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의 크리스찬 인구는 일본보다 훨씬 많고 교회규모도 크기 때문에 「한국에 배우라」고만 하고 한국은 가르치는 쪽 일본은 배우는 쪽이라는 구도가 항상 있습니다. 이와같이 홀리네스교회에 있어서도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우리 교단보다 교세에 있어서도 재정면에 있어서도 거의 10 배의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공동연구회에서 한 편이 가르치는 쪽이고 한 편은 배우는 쪽이 아닌 어디까지나 평등한 입장에서 겸손하게 서로 배우는 그러한 자세가 관철되고 있었습니다.

후반의 교토관광에서는 20 명 가까지의 한국분들에게 우리들이 따라가는

형태로 명소를 돌았습니다. 그 곳에서 희노애락을 스트레이트로 표현하는 한국 목사님들의 모습에 이 쪽은 몇 번이나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내 안에서 그 것을 차츰차츰 친밀함으로 느끼기 시작하며 변화해 가는 것을 보며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의 다름을 넘어서 서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인적교류가 중요함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편안함의 가장 큰 요인은 「화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는 전쟁중 일본군 등에 의한 행동이 아직도 정치 문제가 되어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죄가 요구되어집니다. 기독교계에 있어서도 일본교회가 한국교회를 방문할 때는 먼저 전쟁중의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사죄행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들곤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한일 성결교회에 의한 역사공동연구회는 이 번으로 5회째를 맞이하여 더 이상 사죄하는 쪽이나 사죄받는 쪽이라고 하는 구도이지 않았습니니다. 복음으로 인해 화해가 되고 큰 장애가 극복되어서 같은 성결신앙에 선 형제관계에 있는 교단으로 아주 우호적이며 건설적인 관계가 쌓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한 토대가 있어서인지 처음 참가한 나도 거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 없이 교제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니다. 「여기에 확실히 화해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니다.

이 것에 인도함을 받아 나 개인 안에서도 한국분들과의 화해가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4일째 점심을 먹고 한 걸음 빨리 헤어지는 나는 「언젠가 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립씨비스가 아닙니다. 더 거깝게 느끼게 되고 더욱 깊게 상대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한 번 가보고 싶다」고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회를 위해서 자비로 출석하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화해위원회의 네 분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